2022년 대학알리 감사보고서

2023년 2월 10일
감사 심하연 작성

본 감사인은 2022년 8월 19일에 제정된 정관에 의거해 2022년도 정기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사업감사, 회계감사, 운영감사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항목 별 감사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사업감사에 관한 사항

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고, 서울시 내 대학알리 홍보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임. 이어, 작년부터 시작된 쿠키뉴스와의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. 다만 대학알리도 총회를 기점으로 임원진 대거 교체가 이뤄지고, 쿠키뉴스 측 담당자도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. 그간 쿠키뉴스 청년기자단을 맡아 주시던 특별취재팀 민수미 팀장님이 5기 담당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큰 상황에, 타 쿠키뉴스 기자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.

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어 이후 다양한 사업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현재 대학언론인 네트워크(이하 대언넷) 주요 집행위원인 차종관, 심하연 두 명 다 대학알리 소속이었다는 점, 이들이 곧 대언넷 활동도 종료할 예정임을 미루어 모아 퇴임 전 대언넷과 대학알리가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실하게 짚어야 할 필요 있음.

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
외대알리, 회대알리 모두 지출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음. 그러나 대학알리는 수입과 지출 금액이 거의 일치함. 후원과 지면발행비 관련해서, 1,2차 공론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지면 발행비 지급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 있음.

그러나 올해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사업에 선정되며 전년도보단 여유로운 재정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함.

운영감사에 관한 사항

한 명의 퇴출이 있었음. 이에 감사 본인이 윤리위원장을 맡아 윤리위원회를 진행함.

그간 대학알리는 정관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가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. (ex. 구성원들의 피드백 수용, 편집국장의 기사 수정 권한(기사의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)등) 그러나 이를 따라주지 않는 구성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음. 명목상이더라도 대학알리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과,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위 등 확실한 활동 가이드 라인이 필요해 보임.

또한,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. 대학알리는 수시모집이지만, 정기모집 일자를 확실히 정하고 그 기간엔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사람을 확실히 모으는 것이 필요함. 그래야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, 입사와 퇴사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.